

24 핍박자에서 사도로 변화된 사울

Chapter

행 9:1~22, 행 26:1~23
은혜찬송 88장 (알았네), 찬양 19장 (어두운 밤 길에서)

오늘 배울



말씀

1. 하나님은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압니다.
2.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마음 열기

before & after



1. 예전에는 무관심하거나 싫어했는데 구원받은 후 흥미를 가지고 좋아하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그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이해하기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바리새인의 엄한 교육을 받았으며, 다른 어느 유대인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문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그도를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히 분노한 그는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에 관한 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초대 교회 때에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 스테반을 돌로 치는데 증인 역할을 했으며,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성도들을 고문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사형시킬 때는 찬성투표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위임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곧 이어 그가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복음의 휘방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주님의 위대한 일군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행 9:15~16)

But the Lord said to him, "Go, for he is a chosen vessel of Mine to bear My name before Gentiles, kings, and the children of Israel. "For I will show him how many things he must suffer for My name's sake." (Ac 9:15~16)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주님께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중고등부 전도집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아! 이제 나는 지옥 안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제 모든 죄를 사해주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동행하시며 저를 이끌어주신 것에 정말 많은 감사가 됐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 8:4)

52년 만에 거듭난 레이 자만 목사



레이 자만은 목사가 된 지 52년 만에 구원의 참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는 거듭나기 전 52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던 목사였고 또한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는 했지만, 거듭나지는 못했습니다. 레이 자만은 8형제 중에 막내아들로 세상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간 후 레이 자만은 성경 연구 시간이 가장 흥

미가 있어 한 번도 강의에 빠진 적이 없었고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부하는 강좌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교수는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이 자만은 그들의 그렇게 고차원적인 비판을 생전 들은 일이 없었고, 성경에 관해 질문하는 것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아니라는 강의를 들을 때에는 답답했습니다. 더욱이 어떤 교수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 강의하면서 그건 전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무지한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났지 결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며, 그의 아버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이 자만은 그때 교수의 말을 잠깐 막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말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교수는 “자만군, 자넨 너무 어려서 이 강의는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등록을 취소하고 퇴장하기 바라네.”라고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만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앉아 강의를 들었고, 그러던 중에 학기 말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강의를 듣고서, 나중에 시험에서도 상당히 좋은 학점을 따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신학대학 과정을 마치고 난 후 자만은 다시 시카고대학으로 가서 3년 동안 나머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실습을 다 마치고 목사로 시무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레이 자만 같이 박식한 목사를 얻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레이 자만은 임종을 앞에 둔 90세 노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두 손이 조그맣게 오그라들었고, 무엇인지 정신 빠진 사람처럼 자만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자만은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천국이 있다는 것조차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난처해져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노파가 공허와 불안으로 떨면서 찢찢매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자만은 고백했습니다. 레이 자만이 시무하는 교회에는 오래 전부터 산논과 베타라는 아주 좋은 부부가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만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14년 후에 자만이 맡고 있는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일이 레이 자만의 온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만의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혹시 복음을 전하는 예배당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그들은 다른 교회도 그가 설교하던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메시지만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논과 베타 부부는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어디에서도 확실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위 근본주의자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논쟁이 심하고, 신 신화자들은 예수도 없이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내던 어느 날, 산논은 마침 페닉스에서 개최되고 있던 한 복음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생전 처음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산논은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완전히 변화되어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고후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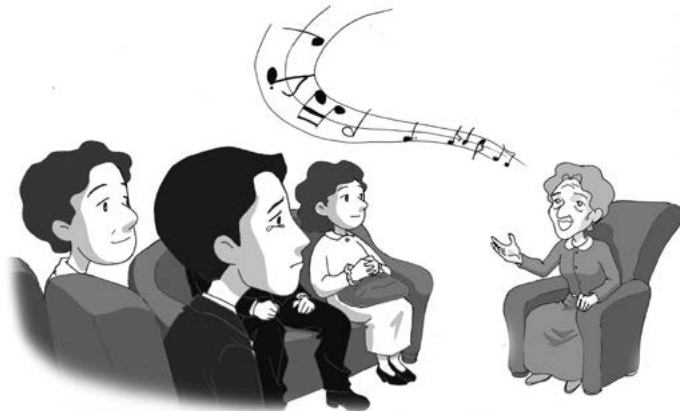
레이 자만은 산논의 경험에 관해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의 설교를 듣고 배웠는데 정말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다니!’ 산논은 정말 자만을 사랑했고 그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자만을 위해 심각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산논이 자만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만은 그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며 정말 그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집회에 가서 자만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을 냈고, 자만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만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집은 상당히 호화스런 주택이었는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찬송을 불러 줄 사람과 간증을 나눌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카멘, 잭 벤슨과 리오라하임이 자만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면서 자만은 이상한 소외감과 공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인 사람들마다 즐거운 표정으로 무엇인가 마음에 간직한 귀한 보화들을 서로 나눠주는 듯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데, 자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참 이상스런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교제하는 곳에서는 거듭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좋은 이름만 가진 사람이 가장 쓸쓸하고 서글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어쩐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였고 자만이 갖지 못한 이상한 영적인 교제가 그들 중에서는 뜨겁게 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노릇이었습니다. 소위 ‘훌륭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이 철철 넘쳐흘렀던 것입니다. 확실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칭찬을 받았다 해도, 그런 자리에서는 한 시간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저녁이 되어 한쪽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나더니 한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양쪽 팔을 부축하여 거의 매달리다시피 들어왔습니다. আমি 심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와 있는 부인이었습니다. 옷을 입기는 입었으나 흰 걸레처럼 남루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눈은 움푹 패어 있었고 그 얼굴에는 극심한 병의 흔적들이 완연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의 부축으로 걸상 가까이에 와서는 몸을 쓰러뜨리다시피 하여 걸상에 털썩 앉았습니다. 잠시 후 산논이 “플로렌스 딸라이안씨, 저희를 위해서 찬송 하나 해 주실 수 있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겠다는 표정으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 부인은 한 손을 이마에 얹고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것이 그 부인에게는 공중석상에서 부르는 최후의 독창이었습니다. 자만은 그 노래를 일생동안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소문난 가수와 성악가들의 노래를 많이 들어봤지만, 플로렌스처럼 찬송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곡목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혹 주 하나님 크시도다: How Great Thou Art!)이었습니다. 그의 음성은 자만의 심장을 깊이 찢러 뒤흔들었습니다. 어느새 눈물 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창피해서 자만은 울지 않은 척했지만, 자꾸 흐느끼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만은 그런 아름다운 모임에서도 영적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자신의 눈물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만은 일생 처음으로 거기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그런 즈음에 자만의 비서로 일하던 카멘 벤슨 양이 정말 기적적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카멘 양은 자만을 보기만 하면 아무 때든지 성경에 관해 말하며 또 말을 걸어왔습니다. 점심 식사하러 나갔을 때에도 빠짐없이 성경에 관해 말하는 통에 자만은 그만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고 거의 귀찮을 지경이었습니다. “난 카멘 양과 모든 일에 처지가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를 뿐 아니라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이젠 그 성경에 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건 자만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멘 양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 성경을 펴면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자만은 책을 펼치며 벌떡 일어나 “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단 말야!” 자신이 들어도 자기 자신이 참 이상했습니다. “난 정말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을 올릴까?” 이것은 차마 입밖에 내지 못하고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카멘 양은 화를 내거나 깜짝 놀라는 대신 이미 생각했던바 그대로라고 느껴 조용히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믿지 않으신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그것을 믿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정말 믿지 못하신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믿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티끌만큼의 효과도 없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사실들을 믿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의 예언도 헛것이고, 또 만일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성경 전체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카멘 양이 자만에게 그렇게 도전해 오기는 처음이었지만, 그 말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일도 없었습니다. 자만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난 기독교인인데... 그러나 실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줄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카멘 양은 틈만 나면 자만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성구를 보여주며, 그것이 형이상학적인 묘한 해석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거의 날마다 이야기도 나누었고 카멘 양이 성경을 읽어주고 또 같이 기도할 때마다 자만은 자기의 위치가 자꾸 약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산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댁에 좀 찾아가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원치 않고 꼭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오십시오!” 자만은 어쩐지 결국 어떤 운명의 날이 오는가보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1966년 3월 28일이었습니다. 산논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 기다리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가질 않는지! 그가 자만의 아파트 방을 향해 복도를 걸어오던 그 발자국 소리는 자만의 귀에 오랫동안 생생했습니다. 드디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가 성경책을 끼고 들어섰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표정으로 그는 방에 들어서자 곧장 자만에게 말했습니다. “레이 목사님, 당신은 전혀 열도당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마 18:3, 눅 10:21) 산논은 계속해서 자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 갔습니다. “목사님, 어린애가 엄마 앞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지 증거해 달라고 합니까? 혹은 저를 정말 돌봐줄 생각이냐고 묻기를 합니까? 자기를 친자식으로 아끼고 사랑하는지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도 질문도 따지는 것도 없이 다만 어려움을 당할 때 쓸쓸하고 어려운 처지 그대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철학과 학문이 필요합니까?” 자만은 얼떨결에 무슨 말을 마구 했습니다. 그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심각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원합니다. 산논씨.” 어느 틈에 자만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다. 수십 년 동안 설교해 왔지만 단 한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적이 없었던 자만이었습니다. 자세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는 생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습게까지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만이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북받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만은 큰 소리로 영영 울기 시작했고, 산논은 자만이 육신적으로 어디가 아픈가 생각했다가, 곧 눈치를 채고 자만을 진정시켰습니다. 자만은 깜깜한 땅 속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두려움과 절망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과 공포, 죄와 과거의 엉터리 설교에 대한 짓누름이 태산같이 자만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죄는 너무나 큰 것이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자만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간신히 고개를 들고 산논을 쳐다봤습니다. “난 다 포기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도망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놀랍고도 큰 평화가 바로 자만의 마음 문 앞에 성큼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자만의 마음 문을 여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자만은 벌떡 일어서며 “산논, 나 성경 좀 읽어야겠어요. 내 성경 어디 있죠?”하고 물었습니다. 산논은 차분한 음성으로 “자,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자만의 눈에 제일 먼저 쫓겨 온 성구는 마태복음 9장 2절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짚으며 차근차근 읽다가 끝 부분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자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자만은 불안과 의심없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요, 신학박사인 레이 자만도 거듭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